

지역 소식통

부안 봉덕 공공실버주택

24일까지 예비입주자 모집

부안군은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추후 공개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1층 접수처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

군은 무주택·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예비입주자 32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년 4월 2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1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현재 공공실버주택은 74세대가 입주했으며 계약진행 중인 세대는 6세대로 추후 계약해지 등 공개세대 발생시 이번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이 입주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가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농번기 기간인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유 중인 141종 1,155대 기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가격리자 관리 '고삐'

정읍시, 해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지속 유입 지역감염 위험 노출... '청정 정읍' 지키기 총력

정읍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며 청정 정읍 유지를 위해 다시 한 번 고삐를 죠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읍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지역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읍시가 청정 정읍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해외 입국자 등 대상자가격리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에 나선 것이다.

관련해, 시는 자가격리 이탈방지 4중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보호 앱 사용과 1일 2회 유선으

로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을 대비, 수시로 자가격리자 유선 확인과 현장 확인을 추가로 실시한다.

더불어, 이달 6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적극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탈 여부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앞서 115명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앱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주간에는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야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관리하는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읍경찰서와 연계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정읍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지 이탈시 처벌사안 안내와 준수사항, 생활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 정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번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강화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누수 없이 추진해 선제적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 863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2,384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선수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친 모든 시민을 응원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선수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코로나19에 맞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수칙을 소개한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영상에서는 씨름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씨름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황찬섭 선수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전한다. 황 선수는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 씻기, 두손 모아 씻기 등 손 씻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였다.

시는 코로나 예방 수칙 등의 메시지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를 담은 이번 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들이 촬영한 캠페

인 영상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정읍시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변산 유유지구 일원 임시경계점 설치 협의

부안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변산면 마포리 유유지구 일원에 임시경계점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 불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역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유유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6일부터 7일까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서 임시경계점 설치 및 토지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협약이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재 111만7,554㎡ 중 102만8,189㎡가 분양 완료되어 92%의 분양성공률을 보이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활기

정읍, 92% 분양 완료... 숙박시설 건축 허가 승인도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분양 대상 면적 111만7,554㎡(33.8만 평) 중 102만8,189㎡(31.1만 평)가 분양 완료되어 92%의 분양성공률을 보이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북은행과 직원 연수원 부지 계약을 마쳤고, 올해 2월에는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과 관광호텔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여기에 광주 소재 기업 (주)트리프트가 약 2천 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4월 중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주)트리프트는 지난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고,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JB연수원의 원활한 건립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추진

해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과 추수 제한(8층 이내)에 대한 전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 준비를 완료했다.

이에 맞춰, JB금융지주 각 계열사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연수원신축 추진단(8명)을 조직해 연수동과 숙박동(110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7일까지 건축설계 업체 공모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을 시작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JB연수원과 호텔, 숙박시설 건립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발진이 마련됐다"며 "내장산리조트를 거점으로 한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더 나아가 정읍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특별지원책 간편한 신청 '눈길'

고창군이 매출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과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 원을 정액(월 20만원)으로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간편하고 신속한 신

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FAX,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등 비대면 신청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수고를 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다 신청서류까지 줄여 소상공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